

핫이슈 | 대통령·경남도지사 선거후 촉각 곤두세운 축구계...왜?



내년 1월28일 예정된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몽규 프로축구연맹 총재(왼쪽부터)와 허승표 피플릭스 회장, 김석한 전 중흥연맹 회장. 스포츠동아 DB

승자 따라 '축구 대권' 경쟁구도 재편

(선거 당선자)

(내년1월 28일 축구협회장 선거)

박근혜후보 당선으로 정몽규 총재 출마 가닥 야권 허승표회장도 축구계 의권 수렴 저울질 조중연의 카드 김석한 회장도 틈새전략 짜기

홍준표 지사, 최진한감독과 재계약 여부 관심

치열했던 선거가 막을 내렸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승리했다. 축구계도 이번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선은 내년 1월28일로 예정된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지사 선거는 경남FC의 차기 사령탑을 비롯해 향후 축구단 운영방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대선-축구협회장 선거의 역학관계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4년 전에는 조중연(66) 현 회장과 '야권'으로 분류되는 허승표(66) 피플릭스 회장이 경선을 벌여 18대10으로 조 회장이 이겼다. 당시 여권 성향표로 분류됐던 5명의 중앙대위원이 지금은 폐지됐다. '여권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라 초 박빙이 예상된다.

여권은 정몽준 협회 명예회장(MJ)의 사촌동생인 정몽규 프로축구연맹 총재(MK) 출마가 가닥이 잡혔다. 조 회장은 재임기간 잦은 실정으로 이미 차기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 과정에서 MJ와 등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야권 총수는 허승표 회장이다. 허 회장은 다양한 축구계 의견을 수렴하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제3의 인물도 있다. 김석한(58) 전 중흥연맹 회장이다.

김 회장의 최근 행보가 눈에 띈다. 그는 유일하게 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다. 5일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틀 전인 3일 "대선이 끝난 12월20일 이후로 기자회견을 연기 하겠다"고 발표했다. 왜 대선 때문에 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했을까. 김 회장 관계자는 "회장 출마를 이슈화시키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보인다. 속사정을 이해하려면 김 회장 출마 배경부터 살펴봐야 한다. 김 회장은 조 회장 사람이라는 게 중론이다. MJ가 차기회장으로 MK를 지지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 회장은 MJ의 심경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다. MJ의 최측근 2명이 조 회장을 만나 "김석한 회장 지지를 철회하라"고 종용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소문도 나돈다.

김 회장에게 대선결과가 중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 회장 측도 나름 계산을 세웠다. 이들은 대선에서 야당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를 가정했다. 이렇게 되면 MJ의 입지가 좁아지고 이 여파로 MK가 아예 출마를 포기할 수 있다고 봤다. 허승표-김석한 2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MJ가 결국은 야당인 허 회장이 아닌 김 회장을 밀 수 밖에 없을 거라는 논리다.

이들은 박근혜 후보 당선 시의 경우도 생각을 해 봤다. 김 회장은 최근 대의원들과 활발히 접촉하며 반응이 좋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허 회장, MK와 3파전으로 가도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허승표-MK 양 강 구도가 형성되면 김 회장은 캐스팅보드를 행사하려 할 수 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친박' 핵심 세력인 새누리당 윤상현(50) 의원의 출마설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 축

구인은 "회장 후보에 등록하려면 대의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정치인은 아마저도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경남FC의 미래는

홍준표(58) 후보가 경남도지사가 되면서 경남FC 후임 사장 선임과 최진한 감독(사진)의 재계약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홍 당선자는 평소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인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당선자는 바른 선거운동 기간에도 12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스폰서 유치로 통한 재정 확충 ▲코칭스태프 강화와 우수선수 영입 ▲마케팅 강화 ▲유소년 축구클럽 연계 ▲남북축교 교류전 개최 등 축구단 운영 청사진을 내 놓기도 했다. 평소 홍 당선자와 가까운 안중복(56) 남북체육교류협회장을 구단 사장으로 영두에 둔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안 회장은 홍 당선자가 당 대표로 있던 작년 7월 문화관광체육정책 특보를 맡을 만큼 친분이 두텁다. 안 회장은 인천축구단 사장 시절 스포서 유치에 능했고, 남북교류에 많은 노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최 감독은 어떻게 될까. 최 감독은 없는 살림에도 FA컵 준우승과 도·시민 구단 중 유일하게 스포츠타입 그룹A(1~8위)에 드는 성과를 냈다. 재계약 명분은 충분하다. 그러나 최 감독은 야당인 전임 김두관 지사가 선임한 사람이다. 이런 정치 지형을 감안할 때 감독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경남 사정으로 누가 오든지도 최 감독 거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윤재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파비오 전북 피지컬코치 6개월짜리 감독 선임 왜?

최강희 감독 복귀 염두...대행 경험도 고려

전북 현대가 20일 2013시즌 감독 대행에 브라질 출신 파비오 피지컬 코치(사진)를 선임했다. 코치에서 감독대행으로 신분 상승이 된 셈. 계약 기간은 6개월이다.

전북이 이처럼 초단기 계약을 한 까닭은 전임 사령탑이자 국가대표팀 최강희 감독의 복귀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최 감독은 2014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종료된 내년 6월,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고 전북으로 돌아온다.

최 감독은 지난 해 12월 대한축구협회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이홍실 전 감독대행이 2012시즌을 이끌었고, 시즌이 끝난 뒤 이 전 감독대행은 스스로 물러났다. 이후 구단은 6개월간 이광 후임자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유일하게 정해진 건 현 코칭스태프 가운데 내부 승격을 시킨다는 방침뿐이었다. 결국 구단의 선택은 파비오 코치였다.

경험을 중시했다. 2011년 초 브라질 동계전지훈련 당시 최 감독의 부름으로 전북에 합류한 파비오 코치는 이미 '감독대행' 경험이 있었다. 브라질 필루 대학과 브랑코 대학에서 스포츠생리학과 축구 지도자 코스를 밟은 파비오 코치는 주로 체력 담당 코치로 활동했지만 1996년부터 3년 간 브라질 플루미네NSE 여자 클럽 감독을 했다.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알 라에드에서 수석코치로 활동한 뒤 감독대행을 맡았다. 전북 관계자는 "6개월 단기 사령탑이라 외부 영입은 고려하지 않았다. 파비오 코치가 팀을 무난히 이끌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파비오 코치도 "중요할 때 감독대행의 중책을 맡았다. 최강희 감독이 돌아올 때까지 팀을 잘 꾸려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yoshike3

구자철 2013전반기 마치고 잠시 귀국

독일 분데스리가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이 2012~2013시즌 전반기를 마치고 잠시 귀국했다. 구자철의 에이전트인 최철우 월스프츠 대표는 20일 "(구)자철이가 오늘 새벽 입국했다. 이달 말까지 국내에 머문다"고 했다. 국내 체류기간 중 26일 공군 홍보대사 자격으로 전투기 F-15K 탑승 체험을 한 뒤 27일 한 포털사이트가 개최할 팬 미팅에 참석한다. 28일에는 스포츠 의류 CF촬영이 예정돼 있다. 구자철은 30일 독일로 돌아가 내년 1월20일 재계절 후반기를 준비한다.

정몽규 프로축구연맹 총재, 축구원로들과 오찬

프로축구연맹 정몽규 총재가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식당에서 OB축구회 원로들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날 이종환 OB축구회회장을 비롯해 35명의 원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재는 축구 발전에 대한 원로들의 노력에 감사 표고, K리그 발전을 위해 계속 격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트위터@sd\_d02

항공자켓의 대명사 독수리항공자켓이 사랑받는 이유 철저한 제품관리와 브랜드 관리로 16년동안 단 한번도 소비자불만이 없는 제품으로 재구매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의 국내 판매 1위 타 제품과 절대 비교불러

Advertisement for (주)케이프로노스 featuring various jackets and promotional events. Includes text like '1+1 EVENT (1) 실내보온+항공자켓 = 49,800원' and '1+1 EVENT 2 실내자켓 2장 : 29,800원'.